

11-24-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24-30

말씀 제목: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감사

농부들은 추수한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들을 골라내어 밭에 파종을 합니다. 추수 때에 가장 좋은 열매들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불로 태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보리와 독보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보리는 알곡이며 독보리는 보리처럼 생겼으나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 좋은 곡식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수인 마귀가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보리와 독보리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될 때에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에 모아들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끝에 하실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마 3:12)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만드시고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어 알곡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16, 고전 15:1-5, 엡 2:8-9)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지난 이천 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을 변개시켜 끊임 없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독보리를 뿌려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갈 1:6-9)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어떻게 사람들을 보리가 아닌 독보리로 만드는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 11:3-4)

보리(알곡)와 독보리(쭉정)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독보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리와 독보리가 교회 안에 함께 앉아 예배도 드리고 온갖 종교행위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받아 다른

교리들로 인해 생겨난 많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른 복음을 심어 저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운 때인 마지막 때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여러가지 행사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보리(알곡)인가? 아니면 독보리(쪽정)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추수에 감사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 조만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알곡을 추수하시는 날에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추수되기를 기다고 있는 디도에게 그들이 받은 추수 감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인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가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2-14)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도들에게 앞으로 때가 찰 때에 하늘로 추수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알곡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곳간으로 추수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사도 바울은 하늘 새 예루살렘 곳간으로 추수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비롭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0-58)

예수께서는 알곡이 되어 하늘로 추수되는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하시더라.”(마 9:37-38) 아멘! 할렐루야!